



[독서 수업 주안점]

- 작품 내용 파악하며 읽기
- 작품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읽기

[교과 연계]

- 5학년 2학기 국어 2.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 6학년 1학기 도덕 2.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 책의 내용 파악하기

『4분의 기적』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을 찾아 쓰세요.

1. 보건 선생님은 왜 로운이와 선호를 보건실로 불렀나요?

2. 선호는 왜 로운이를 보면 심술이 나나요?

3. 선호 엄마 아빠는 선호가 무엇이 되길 바라나요?

4. 대회 날, 선호와 로운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독서 중 활동]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건 선생님은 애니를 향해 손깍지를 끼고 심폐 소생술 하는 자세를 취했다.
“무릎을 꿇고 양팔은 쪽 편 다음, 체중을 실어 쓰러진 사람의 가슴 중앙을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는 거야. 분당 100회 이상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심폐 소생술을 끝낸 보건 선생님은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심폐 소생술을 30회 정도 하는 거야. 좀 빠른 박자로 애국가를 후렴 전까지 부르면서 하면 속도와 횟수가 딱 맞아. 그리고 환자의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려 숨 쉬는 길, 즉 기도를 열어야 해. 그 상태에서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밀착해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어 인공호흡을 2회 하는 거야. 심장이 멎었을 때, 4분 안에 심폐 소생술을 받으면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 그래서 그 4분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골든 타임이라고 부른단다. 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함께 배워 보자.”

1. 심폐 소생술에 대해 알고 싶은 것, 짐작한 것, 새롭게 안 것을 써 보세요.

알고 싶은 것:

짐작한 것:

새롭게 안 것:

2. 위 글을 읽으며 짐작한 것입니다. 짐작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

<보기>

민정: 보건 선생님은 심폐 소생술로 사람을 구한 적이 있어.

은지: 심장이 멎고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어 위험해.

혜인: 심폐 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포함하는 응급 처치 방법이야.

3. 심폐 소생술에 대해 친구들이 떠올린 지식과 경험이에요. 각 문장을 지식과 경험으로 바르게 분류해 보세요.

- ① 뉴스에서 심폐 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학생을 본 적이 있어. ()
- ② 심폐 소생술은 심장이 멈추었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처치 방법이야. ()
- ③ 심폐 소생술은 초등 5, 6학년이 되면 배울 수 있어. ()
- ④ 아빠는 회사에서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4. 심폐 소생술의 순서에 맞게 번호를 써 보세요. ()

- ① 호흡이나 맥박이 없으면 즉시 심폐 소생술 준비하기
- ② 환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과 반응 확인하기
- ③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해 호흡 확인하기
- ④ 인공호흡 2회 실시하기
- ⑤ 환자의 가슴 중앙을 찾아 두 손을 겹쳐 각지 껴서 손바닥 뒤꿈치로 30회 압박하기(분당 100-120회 속도, 약 5cm 깊이)
- ⑥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 소생술 30회와 인공호흡 2회 반복하기
- ⑦ 주변에 119 신고 및 자동 심장 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요청하기

[독서 후 활동]

○ 생각해 보기

1. 로운이와 선호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해 오해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친구나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써 보세요.



2. 선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더 열심히 하라며 선호를 다그치지요. 여러분이 선호라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3. 로운이와 선호는 심폐 소생술로 쓰러진 편의점 아저씨를 구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도와주지 못해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써 보세요.

[어휘력 문제]

○ 빈자리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열사병	땀	이방인	구둣발
-----	---	-----	-----

1. 누군가 로운이와 선호 쪽으로 _____ 소리를 내면서 걸어왔다.
2. 선호의 마음은 몇 톤은 되는 _____ 처럼 가라앉았다.
3. 가끔은 이 교실에서 자기만 _____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4. 정말 더워서 _____ 에 걸릴 것 같아.

독후 활동 정답

[독서 준비]

○ 책을 살펴보고 기본 정보를 파악해 봐요

- 제목: 4분의 기적

- 글: 제성은 그림: 임나운 출판사: 크레용하우스

○ 책 표지를 살펴봐요

- 책의 제목 '4분의 기적'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4분의 기적이 무슨 의미일지 궁금해요, 4분 동안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요 등
(tip. 제목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작품과 가까워지게 한다.)

- 표지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두 남자아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등

- 표지에 그려진 인물의 표정이 어떤가요?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 따뜻해 보인다 등

[독서 활동]

○ 책의 내용 파악하기

1. 보건 선생님은 왜 로운이와 선호를 보건실로 불렀나요?

로운이와 선호를 전국 초등학교 심폐 소생술 경연 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가 보라고 하기 위해

2. 선호는 왜 로운이를 보면 심술이 나나요?

자기와 다르게 덩치가 크고 자유로워 보여서, 로운이가 부러워서, 자기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3. 선호 엄마 아빠는 선호가 무엇이 되길 바라나요?

의사

4. 대회 날, 선호와 로운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쓰러진 편의점 아저씨에게 심폐 소생술을 해서 뉴스에 나왔다.

[독서 중 활동]

1. 심폐 소생술에 대해 알고 싶은 것, 짐작한 것, 새롭게 안 것을 써 보세요.

알고 싶은 것: 심폐 소생술을 몇 살부터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짐작한 것: 뇌 손상이 시작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 같다.

새롭게 안 것: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인 골든 타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2. 위 글을 읽으며 짐작한 것입니다. 짐작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민정**)

3. 심폐 소생술에 대해 친구들이 떠올린 지식과 경험이에요. 각 문장을 지식과 경험으로 바르게 분류해 보세요.

- ① 뉴스에서 심폐 소생술로 사람을 살린 학생을 본 적이 있어. (**경험**)
- ② 심폐 소생술은 심장이 멈추었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처치 방법이야. (**지식**)
- ③ 심폐 소생술은 초등 5, 6학년이 되면 배울 수 있어. (**지식**)
- ④ 아빠는 회사에서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대. (**경험**)

4. 심폐 소생술의 순서에 맞게 번호를 써 보세요. (②→⑦→③→①→⑤→④→⑥)

[독서 후 활동]

○ 생각해 보기

1. 로운이와 선호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해 오해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친구나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써 보세요.

[예시]

나랑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귓속말을 하면서 깔깔 웃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 있어서 내 애긴 줄 알고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 보니 그냥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던 것이었다.

2. 선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더 열심히 하라며 선호를 다그치지요. 여러분이 선호라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예시]

엄마 아빠, 저 요새 자꾸 제가 못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엄마 아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며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제 노력을 알고 칭찬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3. 로운이와 선호는 심폐 소생술로 쓰러진 편의점 아저씨를 구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도와주지 못해 후회됐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써 보세요.

[예시]

휠체어를 탄 아주머니가 파여 있는 길에 바퀴가 빠져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

서 차마 도와드리지 못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아저씨가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나중에 다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꼭 도와드려야겠다.

[어휘력 문제]

○ 빈자리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2. 누군가 로운이와 선호 쪽으로 구둑발 소리를 내면서 걸어왔다.
2. 선호의 마음은 몇 톤은 되는 땃 처럼 가라앉았다.
3. 가끔은 이 교실에서 자기만 이방인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4. 정말 더워서 열사병 에 걸릴 것 같아.